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5월 6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지역산업과 김상모 과장(2110-5601), 조현훈 사무관(2110-5603)

지역기업 지원 시스템內, 병목현상 제거

- 산업부, 지역기업 지원성과 제고를 위해 지원체제를 A~Ω까지 개편 -

◈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윤상직)는 기술혁신 역량이 열악한 **지역기업 지원서비스사업**(비R&D사업) **지원체제 全 과정**을 **지역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개편**하고,

○ 5월부터, 지역사업중 **2단계 광역선도사업에 우선 적용할 계획**임을 밝힘

☞ 개편(안)이 시행될 경우, **기업 지원성과 제고**는 물론, 사업 참여 **장애요인 제거, 절차간소화를 통해 기업부담을 대폭 완화**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

◈ **개편(안) 주요 내용을** 보면 〔광역선도 비R&D사업('12년 324억원)에 적용시〕

① **추진체계 효율화**

- 사업수행기관(TP 등) 역할을 지역기업 간접지원(중개기능)에서 **직접지원으로 전환**하고, 참여요건을 강화하여 **기관 수 축소·조정(170개→ 100개 내외)**
- 기업수요 맞춤형 계획 수립 및 **패키지 지원이 가능한 융합형 과제 기획**

② **예산 운용체계 강화**

- **기관 흡수예산**(인건비 등)**을 줄이고**, 기업지원 비율을 **전체예산의 70%수준까지 확대**(現 52%)하여 **직접 기업지원예산이 약60억원 증가**(167 → 228억원)
- 우수성과 과제·기관에 대해서는 **차년도 예산에서 인센티브 지급**

③ **관리체계 대폭 간소화**

- **제출서류 간소화**(14종→**2~3종으로 축소**), **Paperless평가제 도입**(약200페이지 규모의 년차보고서 제출 不要), 발표평가(PPT 작성·발표)**에서 Q&A 평가로 전환**
- 전년도 우수성과 과제는 **평가 Pass제 도입** 등

④ **지역 TP 기업지원단 역할 강화**

- 지역기업 지원 全 과정의 **총괄적 관리** 및 **플랫폼 기능 중심으로 특화**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윤상직)는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한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**지역기업지원서비스사업**(비R&D사업*) **추진체제 全 과정을 지역산업·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개편(안)을 마련**하고,

○ 5월부터, 지역사업중 **2단계('12.~'14.) 광역선도 비R&D사업에 우선 적용할 계획**이라고 밝혔다.

* **비R&D사업**: 지역내 기술혁신지원기관(TP, 대학, 연구기관 등) 주도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, 사업화 지원, 인력양성 등의 **기업지원서비스 추진**

□ 금번 **개편(안)**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의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*하고, 4개월간 **산학연 전문가 20명*의 집중 분석과 검증과정을 거쳐 마련**되었다.

* **현장점검 결과**: 목표대비 실적 부진, 수행기관 역할 부족, 참여기관 수 과다 등

* **TFT 운영**('13.1.~4.): 지역전문가, 기술혁신지원기관(대학, 출연(연)) 소속 전문가, KIAT 등 20명

○ 개편(안)이 지역사업 비R&D사업에 적용될 경우, **지역기업 직접지원 성과 제고**는 물론, 지역기업의 **장애요인 제거**, 절차 간소화를 통해 **기업부담을 대폭 완화**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2단계 광역선도 비R&D사업(**'12년 예산 324억원**)에 우선 적용하게 될 **개편(안)의 주요 내용을 보면**

① 추진체계 효율화

○ 지역내 기술혁신지원기관(TP, 대학 등)의 지역기업에 예산을 중개지원하는 현행 '간접 지원방식*'에서 **지역기업과 직접 Contact하여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행체계를 재편**하는 한편,

* 시제품 제작, 특허지원, 전시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나눠주는 **단순 예산 집행 기능**

- 사업수행기관의 기업지원 역량·전문성 평가, 참여기관 수 제한* 등의 **참여요건을 강화**함으로써 **참여기관 수를 현재 170개*에서 100내외로 축소·조정****할 계획이다.

* 전체 42개 과제에 **총170개 기관**(TP 65개, 대학 28개, 출연(연) 12개, 기타 56개)

** 수행기관 수 제한: (前) 과제당 평균 4개 → **평균 2개 이내로 수행기관 수 축소**

○ 또한, 현재는 사업 수행기관들이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원서비스 메뉴판*에서 제시하고 있는 **서비스 유형 전부를 백화점식으로 지원**하고 있으나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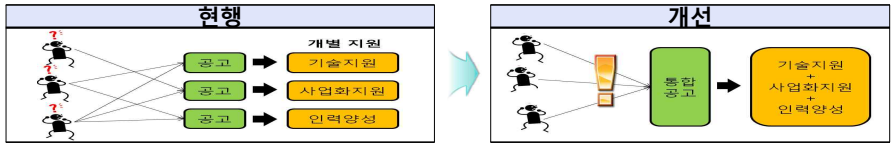
- 앞으로는 수행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기존 메뉴판 틀에서 벗어난 **창의적 서비스 방식 도입을 가능**하게 하고, 기업 수요에 맞춰 메뉴판내 서비스를 **패키지화하는 융합형** 기획도 적극 권장**할 계획이다.

* **기업지원서비스 메뉴판(예)**

【기술지원】 시제품제작, 기술지도, 인증지원, 특허지원, 제품고급화, 기술이전 확산
【사업화 지원】 디자인, 마케팅, 전시회, 컨설팅, 네트워킹, 브랜드 연계지원, 상품기획
【인력양성】 장비교육, CEO교육, 기술경영, 자격증 취득지원, 리콜형 교육, 생산기능인력

** **융합형 과제**(예): 기술지원(시제품제작) + 사업화지원(상품기획) + 인력양성(장비교육)

○ 사업공고 방식도 현재는 수행기관별로 **각자 개별 공고**하고 있으나, **동일 권역내 수행기관간 통합공고방식으로 전환**하고 **패키지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시행**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**비효율성을 제거**함



② 예산운용 체계 강화

○ 과제별 예산 편성시, **수행기관 흡수예산**(인건비, 간접비 등)**을 최소화**하고, **직접 기업지원예산 비율을 전체사업비**(국비포함 현금)**의 70% 수준까지 확대**(現 52%)할 계획이며,

- 이 경우, 직접 지역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**167억원에서 228억원까지 확대**되어, **예산이 약 60억원**(全예산 比 19%↑) **증가**함에 따라, **수혜기업 1,987개, 인력양성 인원 2,940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***된다.

* **수혜기업 증가**: ('12) 5,440개 → ('13) 7,427개(1,987개 기업↑),
인력양성 인원 증가: ('12) 8,050명 → ('13) 10,990명(2,940명 ↑)

○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**Feedback을 강화**하기 위해 매년 **기업지원서비스 우수기관을 선정·홍보**하고, 우수성과 과제에 대해서는 **차년도 예산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**이다.

③ 관리체계 대폭 간소화

○ **지역기업의 지역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** 신청단계에서 최대 14종까지 제출해야 했던 서류를 **2~3종의 필수서류*만을 제출**토록 하고, **사업계획서 분량도 4페이지 이내로 최소화**하였다.

* 【인력양성사업】 교육지원신청서, 재직증명서 등 2건
【기술·사업화 지원사업】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재무재표 등 3건만 징구

○ 또한,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(RITIS)을 활용하여 **온라인상에서 상시 진도점검 체제*를 본격 가동**함으로써,

* 수행기관: RITIS상에 분기별로 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만을 입력(3000자 이내/분기당)

- **국내 R&D사업 최초로** 수행기관이 년차보고서(약200페이지)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**'Paperless 평가제'를 전면 도입·시행****하고,

* **'13.4월**, 광역선도사업 년차평가 과정에서 **Paperless 평가 시범 시행 완료**

- **년차 평가과정**에서는 수행기관이 PPT를 작성·발표하지 않고, **Q&A 평가방식으로만 진행함으로써 평가부담을 완화**시켜줄 계획이다.

○ 그리고, 전년도 평가 과정에서 **우수성과 과제로 선정될 경우**에는 현장점검이나 년차평가를 면제해주는 **'평가 Pass제'도 도입**한다.

④ 테크노파크 '기업지원단'의 지역단위 총괄기능 강화

○ 금년 5월부터, 지역내 핵심 기술혁신지원기관인 테크노파크(TP) '기업지원단'은 지역사업 기획-컨설팅-성과모니터링 등 **지역기업 지원의 全 과정에서 총괄적 관리기능을 수행**토록 하는 한편,

- **'기업지원단' 고유기능을 활성화**하기 위해 지역내 기술혁신 자원간 비즈니스 중개기능(컨택센터 확대), 비R&D 수행관리 등의 **플랫폼 기능*으로 특화시킬 계획**이다.

* 지역특화사업의 **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**(단장 포함)에 대해서는 **인건비를** 「테크노파크운영지원사업」에서 100% **지급**

OPEN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조현훈 사무관(☎ 02-2110-560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